

## 기적수업-

# 실제하는 것은 결코 위협 받을 수 없다

| 강구영 |

헬렌 슈크만의 기적수업을 텍스트로  
모임을 가져왔던 강구영 선생이  
홀로스 북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기 전에  
소개글을 씁니다.  
기적수업의 깊은 통찰을 맛보 시오  
기적수업 공부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면  
미내사로 연락바랍니다(편집자 주).



## 기적의 한 과정 (A Course in Miracles; ACIM)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고체계(思考體系)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일단 이 사고체계를 통하여 보거나 듣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오로지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는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사고체계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공고하게 해주는 것은 적극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지만, 우리의 사고체계를 흔드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대감을 느끼고 배척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곧 우리의 사고체계를 형성하는데, 흔히 말하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과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고체계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고체계가 굳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그 사회가 구축해 온 사고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그만큼 더 바꾸기 힘듭니다.

ACIM은 세상의 사고체계와는 정반대의 사고체계를 가르치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들을 털어버리는데(unlearning) 주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지 않으면 곧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알려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찰하지 않으면 ACIM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렌 슈크만(Helen Schucman)이 내면의 음성을 받아 적은 것이 ACIM인데, 이 내면의 음성의 주인공은 예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했던 헬렌이지만 ACIM을 받아 적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양이 방대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사고체계와 너무 달랐던 예수의 메시지에 헬렌이 엄청난 저항을 느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ACIM은 이론서나 신학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논쟁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ACIM은 말하자면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직접 걸어보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결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 길을 걸으면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머리로 판단하면 이미 자신의 사고체계를 통하여 걸러지게 되므로 엄청난 저항을 느낄 것이고 더 이상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이라면 ACIM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지침들도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법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이 처음에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어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ACIM을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필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ACIM의 첫 부분인 서언(introduction)을 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언은 아주 짧기 때문에 원문을 함께 소개합니다. 직접 원문의 맛도 함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식 번역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 글에 나오는 모든 번역문은 필자가 직접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 INTRODUCTION

This is a course in miracles. It is a required course. Only the time you take it is voluntary. Free will does not mean that you can establish the curriculum. It means only that you can elect what you want to take at a given time. The course does not aim at teaching the meaning of love, for that is beyond what can be taught. It does aim, however, at removing the blocks to the awareness of love's presence, which is your natural inheritance. The opposite of love is fear, but what is all-encompassing can have no opposite.

This course can therefore be summed up very simply in this way: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이것은 기적에 관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필수과목이다. 오로지 그대가 그것을 택하는 시간만이 자발적이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대가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주어진 시간에 그대가 수강(受講)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 과정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사랑)은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현존(現存)을 자각(自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랑의 현존이야말로 그대가 타고난 유산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사랑)에 반대란 있을 수 없다.

이 과정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

실재(實在)인(real) 것은 결코 위협받을 수 없다.

실재가 아닌(unreal)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신(神)의 평화가 놓여있다.

ACIM은 A Course in Miracles의 머리 글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The Course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ACIM 만이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훌륭한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ACIM의 저자는 이 과정은 특별한 커리큘럼으로서 보편적인 과정을 가르치는 특별한 형식일뿐이며,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천 가지 다른 형식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This is a manual for a special curriculum, intended for teachers of a special form of the universal course. There are many thousands of other forms, all with the same outcome (M-1,4:1-2).

이것은 보편적인 과정의 한 특별한 형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 매뉴얼이다. 이외에도 수천 가지 다른 많은 형식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ACIM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과정이야말로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주 부지런한 사람, 혹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만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벌써 이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명석한 천재를 위한 과정도 아닙니다. 이론적인 공부가 목적이 아니기에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이것 저것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견뎌내기 어려

울 것입니다. 따라서 ACIM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영적 안내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혼합하거나 취사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자신의 영적인 길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걷든지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자신과 공명한다고 느낀다면 굳이 이것 저것 두리번거리거나, 다양한 다른 길들을 알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ACIM은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의 어느 하나라도 빼다거나 고친다면 그것은 이미 ACIM이 아닙니다. 전부냐 아니냐를 요구하는 ACIM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This course will be believed entirely or not at all. For it is wholly true or wholly false, and cannot be but partially believed (T-22.II.7:4-5).

이 과정은 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가 진리이거나 아니면 전부가 거짓이며, 따라서 일부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능한 길 중의 하나이지만 필수과정입니다. 여기서 필수라는 의미는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ACIM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구분합니다. ACIM 자체는 여러 가지 가능한 형식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 이유도 형

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과정이라는 말은 내용면에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으며, 이 결백함 안에 그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Its central theme is always, “God’s Son is guiltless, and in his innocence is his salvation.” (M-1.3.:5)

중심 주제는 언제나 다음과 같다: “신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으며, 이 결백함 안에 그의 구원이 들어있다.”

신의 아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신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의 아들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만이 신의 독생성자(獨生聖子)라고 가르칩니다만, 같은 예수가 구술해 준 것을 받아 적었다는 ACIM은 우리 모두가 같은 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의 한 아들을 그리스도(Christ)라고 부르는데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The name of Jesus is the name of one who was a man but saw the face of Christ in all his brothers and remembered God. So he became identified with Christ , a man no longer, but at one with God. . . . Is he the Christ? O yes, along with you (C-5.2:1-2; 5:1-2).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든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고 따라서 신을 기억한 자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가? 물론, 그대와 함께 그러하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용어인 Sonship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서 일단 아들집합이라는 말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의 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아들집합은 이 세상에서의 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이 좀 안되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분리되고 독립적인 개개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ACIM은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도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역설합니다.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God has only one Son. If all His creations are His Sons, every one must be an integral part of the whole Sonship. The Sonship in its Oneness transcends the sum of its parts (T-2, VII, 6:1-3).

신에게는 오직 한 아들만 있다는 것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의 모든 창조들이 그의 아들들이라면 각자는 전체 아들집합의 통합적인 부분일 수 밖에 없다. 단일성(單一性) 안에서의 아들집합은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

아들집합과 그리스도는 결국 같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

할 따름입니다.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는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을 통해서입니다. 형제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 없는 신의 한 아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ACIM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과목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수강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수강한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허약하고, 왜소하며, 죄 많은 가여운 존재가 아니라, 튼튼하고 장엄하며 죄 없는 신의 영광스러운 아들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선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겠지요? ACIM은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CIM의 가르침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어렵거나 이론적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실천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체계가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아직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직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볼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내면의 저항이 강해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ACIM은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입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점오점수(漸悟漸修)의 접근을 취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

금씩 자기성찰을 통하여 ACIM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안내합니다.

수강할 시간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과정의 커리큘럼 자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커리큘럼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내용을 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바로 용서요, 기적입니다. ACIM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기적의 한 과정이니 당연히 내용은 기적이 되겠지요?

ACIM에서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라면 일단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관용을 베풀어 눈감아 주는 것을 용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나와 상대방은 분명히 분리됩니다. 잘못을 범한 자와 그 피해를 본 자로 나뉘며, 상대방은 죄가 있고 나는 결백한 자가 됩니다. 앞에서 신의 아들은 하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나와 상대방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ACIM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이요, 반응일 뿐입니다. 똑같은 언행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혹은 상대방에 따라 같은 언행에 전혀 다른 반응

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언행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나의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의 언행은 나의 내면의 모습이 투사(projection)된 것이라고 ACIM은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상대방에 따라, 혹은 나의 상태에 따라 내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드러난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Projection makes perception. The world you see is what you gave it, nothing more than that. But though it is no more than that, it is not less. Therefore, to you it is important. It is the witness to your state of mind, the outside picture of an inward condition (T-21.in.1:1-5).

투사(投射)가 지각(知覺)을 만든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가 그것에게 준 것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에게는 중요하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 상태의 증거로서, 내적인 상황의 외적인 그림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도둑놈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도둑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지각(perception)하는 모든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라고 ACIM은 가르칩니다. 환상이란 단순히 헛된 것이 아니라 실재(real)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것이 환상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저 웃을 수 밖

에 없겠지요? 바로 이것이 ACIM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즉, 상대방에게서 도둑놈이 보일 때, 물론 이것은 나의 내면의 모습이 투사된 것이지만, 도둑놈이라는 판단 자체가 내가 지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환상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겠지요?

기적이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실재를 실재로 보고 환상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생각들이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기적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지요? 대체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ACIM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법(magic)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우리가 커리큘럼을 짤 수 없다면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ACIM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자유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더라도 죄 없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으로부터 불신을 살만한 짓을 저질렀더라도,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에 지

나지 않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 없는 신의 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ACIM은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의 본질이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ACIM은 신이나 하늘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We say “God is,” and then we cease to speak, for in that knowledge words are meaningless (W-pI. 169.5:4).

우리는 “신이 계시다”라고 말할 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앞 안에 언어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앎(knowledge)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각과 대비되는 말로서 오감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체화되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설명 또한 필요 없겠지요? “신이 계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이는 물론 각자의 체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칩니다. 이 점에서 ACIM은 다른 많은 영성의 길과 다릅니다. 많은 종교나 영성 단체들은 하늘이나 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나 자유 또는 평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ACIM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일단 무엇이 사랑인지, 혹

은 하늘인지, 혹은 신인지 말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도그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둘(two)일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술한 종교적인 갈등이나 영성 단체들 사이의 경쟁은 어쩌면 이러한 도그마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면 내가 틀려야만 합니다. ACIM은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옳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습니다.

Do you prefer that you be right or happy? (T-29, VII, 1:9)

여러분이라면 옳기를 바라겠습니까,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옳기를 바란다면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을까요? 과연 모든 시간과 공간에 일관되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옳은 것이 될 텐데, 결국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익히 경험한 도그마 아닌가요? ACIM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행복하기를 바라자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신은 바로 사랑이라면 우리 역시 사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우리

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직시(直視)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본질인 사랑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ACIM의 독특한 방법이요, 철학입니다. 긍정성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접근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러나 ACIM은 오히려 우리의 부정성을 부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긍정성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성이라면 근심, 걱정, 불안, 분노, 판단, 비난, 시기 등이겠지요? ACIM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정성을 부정하라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부정하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ACIM의 가르침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ACIM은 두려움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라는 말이지요. ACIM은 두려움은 실재(實在)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실재란 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속



성 혹은 신의 창조는 다 실재입니다. 사랑은 신의 속성이므로 실재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창조이므로 우리 역시 실재입니다. 신과 아들이 함께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하늘 역시 실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했지요? 모든 것이라면 다른 것은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 역시 있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실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은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ACIM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환상(illusion)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환상과 싸운다거나 환상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 환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ACIM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 ACIM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 점도 ACIM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순이나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모두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를 흔쾌히 인정하고 새로운 전환을 기꺼이 모색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ACIM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자

신의 내면을 성찰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로소 모든 모순과 부정성들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없애 버릴 수도 있겠지요? 환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환상을 없앨 수 있는 힘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되므로 아주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요?

이 서언의 마지막 부분은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과정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

실재(實在)인(real) 것은 결코 위협받을 수 없다.

비(非)실재인(unreal)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신(神)의 평화가 놓여있다.

앞에서 실재란 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했지요? 실재는 단일성(Oneness)의 상태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없으니 당연히 위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협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일성의 실재 안에는 위협은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재 안에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했지요? 결국 단일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의 사랑에는 예외나 배제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한 부분만 더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사랑이 아님

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 또한 하늘의 사랑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나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조건도 없고 배타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위협은 전적으로 환상입니다. 환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위협받을 수는 없겠지요?

이어서 실재가 아닌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합니다. ACIM에서는 신과 하늘,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실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신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The world was made as an attack on God (W-pII.3.2:1).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닌 것은 결코 실재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은 실재가 아니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요?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이렇게 명백하게 세상을 지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니 정말로 말이 되지 않지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또한 영리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투사하고는 그것을 오감을 통하여 느낍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망각하도록 장치를 꾸며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지각하는 외부 세상이 우리와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내부(나, 主)와 외부( , 客)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분리아말로 단일성의 실재와는 정반대이겠지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그 원천을 떠나지 않는다(Ideas leave not their source)는 것이 ACIM의 핵심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와는 떨어져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원천인 우리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 내면의 상황이 투영된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상황이 투영된 이 세상은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말하자면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Therefore, seek not to change the world, but choose to change your mind about the world (T-21.in.1:7).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해할 때 신(神)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평화라 하지 않고 신의 평화라고 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와 신의 평화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ACIM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 개인을 위한 것이면 환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진 행복, 자유, 사랑, 기쁨, 깨달음 등도 만약 그 앞에 “나의” 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왜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self)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하늘의 한 아들에 대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아들집합(Sonship)이라고 했지요? 아들집합 역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들들은 제쳐놓고 나의 개인적인 행복, 자유, 사랑, 기쁨, 깨달음 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재인 것은 위협받을 수 없고 실재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신의 평화는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신의 평화가 드러나는 통로요, 모델일 뿐입니다. 내(self)가 중심에 있는 한 신의 평화가 드러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일 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상황과 시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란 곧 우리의 몸, 혹은 자아(self)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자아, 세상, 시간 등은 모두가 환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체는 신의 아들이며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곧 실재인 우리는 결코 환상에 의해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실재가 아닌 것, 곧 환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우리 내면의 그림이 밖으로 투사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신의 평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기적수업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면 02-747-2261로 문의 바랍니다.

저자 | **강구영** | <기적수업 공부모임> 카페운영자, JOHA(Joyful and Happy) Life Coach.

<http://cafe.naver.com/acimstudy>